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8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사순절**: 22일 성회 수요일과 함께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히 기도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달력: 필요한 대로 가져 가세요.
5. 성경통독: 제 5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 진행(12일) 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 기도회. 2/22(수)8시 Zoom 기도회(사도행전)
7. **점심**: 송순란 집사님께서 접대하심. **강단미화**: 조민연 권사님 가정에서 드림.
8. **특별헌금**: 다음 주일 재난을 당한 터키 구호 헌금에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2,808.00)

십 일 조: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유혜영, 이진원 유금자,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윤경.

감 사: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경원, 이승택, 이진원 유금자,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우형 이해련(조하영 백일).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박병기,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 별:

2023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흑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제15권 8호 2023년 2월 19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 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 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 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 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조민연 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 5:25-34 다 같 이
- 설 교 Sermon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조병우 목사
- 봉헌찬송 Hymn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같 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 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 표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 즐겁게 식사하시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 요 기 도 회

새 벽 기 도 회

밤 8:00 (ZOOM)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조민연 권사	조병우 목사	송순란 집사	조민연 박종님
다음주	우영자 권사	박종님 전도사	우영자 권사	



- 세상은 과연 당신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1:14)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 와 함께 천막을 치셨다" 인데, 그것은 고대 그리스어로 된 구약성경에서 성막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53:2). 아무도 주님을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며,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장막이 걷어 올려져서 요한은 예수님의 내적 아름다움과 위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피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아주 평범하고 보통으로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과연 당신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John sai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John 1:14). The word dwelt means He "pitched His tent with us," the same word that ancient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used for the tabernacle. Jesus looked like an ordinary man: He had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Isa 53:2). No one gave Him a second look. Yet John "beheld His glory," the glory of God Himself.

Occasionally, the tent flap was lifted and he caught a glimpse of Jesus' inner beauty and majesty. We are tabernacles too, made of skin, made to contain God's Spirit. We may be very plain and ordinary on the outside—but as we allow God's Spirit to work within us, the beauty of God's indwelling presence will shine from our faces. So, is the world seeing Jesus in you?